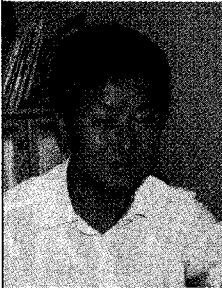




때밀이 만세

<< 아들(딸)과 함께 때밀이를... >>



곽병찬
한겨레신문 문화부장

“아아~, 이게 뭐야. 어떻게 국수가락보다 굵지.”

“두고 봐, 아빠라고 다를까.”

“그래 두고 보자. 아무리 그래도 나야 국수가락 만하겠냐?”

“작은 소리로 말해, 창피하게.”

“어쭈, 창피한 줄은 아네. 그럼 평소에 잘 해야지.”

“살살 하란 말야. 아파.”

무슨 장면일까. 등장인물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. 예전 같으면 항용 있는 일이니까 대개 알겠지만 요즘 같아선 흔치않은 일이다. 조금만 더 진전시켜 보자.

“야 이래 가지고 여자친구가 널 보기라도 하겠냐. 머리카락에 무스 바르고, 매일 옷 갈아입으면 뭐하나. 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기겁해서 백리 밖으로 도망가겠다.”

“여자친구 사귄 맘도 없으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돼.”

“다행이다. 집안 망신시킬 뻔 했네.”

“아이구 아퍼라.”

그래도 모를 사람이 있을까. 한 대목만 더 풀어보자.

“이 막국수 놔두고 어떻게 살살 하냐. 참고 있어.”

“아휴, 그만 해. 소리나 작게 하고.”

“마, 네 살이 드러나려면 아직 한참 더 밀어야 해.”

“아이고 아들 죽이네. 아빠랑 다시는 오나 봐라.”

옆에 앉아서 열심히 때를 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본다. 웃음을 더는 못 참겠나 보다. 아들 얼굴이 벌게졌다. 샤워기를 튼다. 제 몸에도 물을

아이를 달랜답시고 고깃집에 가서 배 터지게 먹고, 게임 씨디나 사다준들 약발은 하루 이틀이다. 돌아서면 그만이다. 그래서 많이 권장하는 게 아이들과 부모간의 짧지만 진득한 스킨십인가 보다. 그중 대표적인 게 목욕탕 요법이다

좌악 뿌린다. 꼭 막국수 가락처럼 생긴 것들이 푹푹 떨어진다. 바가지에 떨어져 담기니 영락없는 막국수 한 그릇이다.

“야, 네 몸만 씻으면 어떻게 하나. 저 바닥도 청소 해야지. 내가 주인이라면 너 같은 손님 아예 받지 않았을 거다.”

“받지 마, 나도 안 올테니까.”

대충 물을 뿌리더니 별떡 일어선다.

“어딜 가려고. 아빠 등도 밀어야지.”

손목을 잡으려는데 아들놈은 내 손을 뿌리치고는,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탕으로 뛰어들어간다. 꽤나 열 받았던가 보다. 목간통 이야기만 보고 우리 집 부자시간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. 좋은 적 보다 나쁜 적이 훨씬 많고, 편한 시간 보다 불편한 시간이 더 많다. 이유는 우선 대면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있다. 날이면 날마다 늦는 건 필자다. 여북하면 아들놈이 ‘아빠, 애인 생겼어?’ 라고 가시 돌친 말을 던졌을까. 필자가 조금 일찍 들어가도 아들은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.

공부 잘 하는 아들은 세상에 몇 안 되니,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 적은 대면 시간에 나쁜 소식만 듣기 마련이다. 친구들과 사고를 쳤다느니, 시험성적이

어떻다느니,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느니 등. 그러니 좋아질 일이 있을까.

그런 아들을 달랜답시고 고깃집에 가서 배 터지게 먹고, 게임 씨디나 사다준들 약발은 하루 이틀이다. 돌아서면 그만이다. 그래서 많이 권장하는 게 아이들과 부모간의 짧지만 진득한 스킨십인가 보다. 그중 대표적인 게 목욕탕 요법이다.

어릴 적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 가운데 하나도 목욕 같이한 일이다. 그때야 목욕은 거의 연중 기념행사였다. 추석이나 설날 앞두고 목욕하는 게 고작이었다. 그때 아버지(혹은 엄마)는 얼마나 새끼를 박박 문질러 댔는지, 목욕탕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란 뺨장게 달아오른 것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것 같았다. 그래도 그 손맛이 아직 삼삼하게 기억날 때가 있다.

이제 날씨도 쌀쌀해졌다.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계절이다. 학력고사다 수능이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일 것이다. 어쩌면 부모에겐 이때가 찬스 아닐까. 이번 주말엔 아이들 손잡고, 그동안 마음에 쌓인 서운함 따위를 때와 함께 말끔히 밀어버리자. 생각만 해도 시원할 것 같지 않은가. **PIPIPI**